

쌀소득 직불금 줄줄 샌다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들 부당 수령
道, 작년 42건 적발…제도개선 시급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일부 부재지주들이 기로채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일부 부재지주들에게 직불금이 흘러 들어가는 원인은 느슨한 제도 및 이 가장 크다. 도시에 사는 부재지주가 소유농지 소재 마을을 이장한 경작 확인서를 받아 자신의 거주지에 신청하더라도 직불금을 지급토록 돼있는

규정이 부당지급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전남지역 농업인들에 따르면 일부 부재지주가 경작 농민에게 경작료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대신 받아 내게 하거나, 부재지주가 직접 경작확인서를 출제해 직불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부재지주에게 부당지급된다는 것을 눈치채더라도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주민과 사실을 확인해주는 마을 이장은 한동네 사람�이어서 당국에 알

리지 못한다. 연간 2천500억원에 달하는 직불금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부재지주에 흘러가는 직불금의 부당지급을 균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소재지에서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당지급 개연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재지주에게 밭을 하는 경작확인서도 이장 한 사람만이 아닌 2~3명의 손을 거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전남도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쌀 직불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갖고 직불금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논의했다.

/박차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고 난 후에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며 직불금을 지급받는 등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내에서는 농지 전용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며 직불금을 받아낸 42건(30농가)을 밝혀냈고, 지난 2005년에는 27건(8농가)을 적발했다. 전남도내에서는 지난 2005~2006년 사이 ha당 70만원을 지급하는 고정형 직불금으로 2천519억원, 2005년에는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직불금 1천721억원이 지급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1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준비접촉에서 우리측 대표인 이관세 차관(원쪽 가운데)과 북측대표인 최승철 통일전선부부장(오른쪽 가운데) 등 양측 대표단이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盧대통령 경의선 도로로 방북

내년 비엔날레 주제없이 간다

엔위저 총감독 기본구상안 발표…현대미술 흐름 망라

내년 9월에 열릴 제8회 광주비엔날레는 기존의 비엔날레와 달리 특정한 주제 없이 세계 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제 없이 행사를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위저 감독은 이같은 새로운 형식의 비엔날레를 위해 ▲2007~2008년 세계 각국에서 열린 전시회를 소개하는 ‘첫번째 섹션-연례보고(Annual Report)’ : 일년 동안의 전시’ ▲짧은 큐레이터들의 전시기획안을 위한 공간인 ‘두번째 섹션-제안서(Position Papers)’, ▲광주를 위해 기획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세번째 섹션-실행 : 광주비엔날레 프로젝트(Insertions)를 기본 구상으로 제시했다.

엔위저 감독은 또 해외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과 광주비엔날레의 세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학자와 철학자들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현장으로 모으는 ‘국제학술회의-북경’, 지역 대학원생들과 샌프란시스코 인스티튜트 등 해외 단체와의 교류를 모색하는 ‘세계적 기관-다국적 교육의 실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들이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 신설과 현재 8명인 당연직 이사 중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을 제외, 6명으로 축소하는 정관을 통과시켰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정상회담 준비접촉 합의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남측 대표단은 경의선 도로를 이용해 방문한다.

또 회담 의제는 지난 5일 체결된 합의서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국면 등 3가지로 정했으며 북한을 방문할 남측 대표단 규모는 202명으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3면)

14일 개성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 접촉을 가진 남측 수석대표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남측 대표단의 평양 방문과 서울 귀환은 서해안(경의선) 도로를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전용 차량을 타고 경의선 도로를 통해 북쪽하고 정상회담 기간 내내 이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고 밝힌 뒤 “남북은 철도와 도로, 항공 등을 다양하게 논의한 끝에 도로를 통해 개성을 경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남측은 경의선 철도를 통한 방북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 규모는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의 182명보다 20명 많은 202명



남북은 정상 회담 횟수 등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야별 실무 접촉이나 선발대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며 준비 접촉은 더 이상 가지 않기로 했다. 다만 통신·보도·의전·경호 등 4개 실무접촉은 16일 추가로 열린다.

한편, 이 차관은 “북측으로부터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노 대통령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는 “(북측이) 초청 즉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 접촉에서 북측에서 최승철 통일전선부부장은 3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내외에서 그립하고 고마운 좋은 빛난 사랑입니다. 광주광역시
제작: '소비자가 좋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브론아이였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람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일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유비미로 임신·수유기 복용 베스트

- 해체·제거시, 노난기

- 유익·건조각의 관통, 이행증

- 면밀·피부염 등에 의한 세소침화

(나비, 주근깨)과 홍반, 이물출혈,

파종령·여린

- 디포로필정하여 첫 경기에서 다른

증상이 완화 / 어린·적금법,

수족처럼 수족증증

아연의 보급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xiecharm.co.kr

고객을 위한 전화번호: 080-022-2200